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주체107(2018)년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3. 조직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로이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단계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변들이 연발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병진의 험난한 로정에서 우리 당은 오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을 안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멈춤없이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울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핵무력건설이라는 역사적대업을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승리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해낼수 있는 빛나는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인 투쟁속에 경제건설에서도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상승세에도 들어선것은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역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것처럼 어렵고 곤란한 속에서도 병진로선의 승리를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필요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보장해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시였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계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핵개발의 전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 로켓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

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인류의 공동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평화애호적립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내세운 역사적과업들이 빛나게 수행된 오늘 우리 당앞에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 진영이 있고 그 어떤 공과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로선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새차체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것이라고 밝히시였다.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서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의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명시되여있다.

첫째,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립계진행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둘째,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중지할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것이다.

셋째,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것이다.

넷째,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것이다.

다섯째, 나라의 인적, 물질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것이다.

여섯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령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갈것이다.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밝혀져있다.

첫째,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 법기관, 무력기관들의 역할을 높일것이다.

셋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결정집행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것이다.

넷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실무적조치들을 취할것이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로이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시였고 첫째 의정으로 토의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 2 면 으 로 계 속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높이 선언하시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년간 조선로동당이 혁명발전의 더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교육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서와 과학교육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과 그 원인들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과학기술발전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부문별, 단위별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학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전사회적인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국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중대한 책임을 걸머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투쟁하는가에 따라 조국의 강대함과 후손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당적책임감과 애국심을 지니고 과학교육사업의 혁명적전환을 위하여 분투해나가자고 강조



하시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들이 반영되어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대토를 열어나갈것이다. 둘째,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셋째, 과학교육부문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앨것이다.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 교육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이다. 다섯째, 각급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철저히 집행할것이다. 여섯째, 내각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관철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대책을 세울것이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원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한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으로 된

다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에 관통되어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시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변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끌어받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함으로써 공화국을 통성변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인민들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에 온 중국관광객들속에서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을 위문 방문하시고 병원을 찾으시여 부상자들을 따스히 위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우리 나라에 온 중국관광객들속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4월 23일 새벽 6시 30분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심심한 위문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중국관광객들속에서 버스전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신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중국당과 정부 그리고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과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발생한것이 매우 가슴아프다고 하시면서 혈육을 잃은 유가족



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통절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도 비극적인 이번 사고를 자기들이 당한 불행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가셔주는 심정에서 후속조치들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취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리진군대사는 김정은위원장님께서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른새벽에 친히 대사관을 찾으시여 진심으로 되는 애도와 위문을 표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습근평 총서기동지와 중국당과 정부에 즉시 보고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할것이라고 하였다.

대사는 김정은위원장님께서서와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중조

친선은 불패의 친선, 위대한 친선이라는것이 다시금 뚜렷이 실증되였다 하면서 조선동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저녁 병원을 찾으시여 부상자치료정형을 직접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상자들을 찾아가시여 따스히 위로하시고 환자들의 상태를 료해하시며 정부병원의 의료성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치료대책을 협의하시였다. 리진군대사를 비롯한 우리 나라 주재 중국대사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요한 정치일정들로 그처럼 분망하신속에서도 이번 불상사와 관련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며 구체적인 조치들까지 친히 취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정을 거듭 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에서 사고를 당한 중국인사망자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한 전용렬차를 떠나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월 25일 밤 평양역에 나가시여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국인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전용렬차를 떠나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인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빠른 시간안에 중국내로 후송하였으면 한다는 중국동지들의 제기를 받으시고 전용렬차를 편성하도록 하시였으며 당과 정부의 책임간부들과 실무인군, 의료인군들이 동행하여 후송 작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5일 밤



평양역에 나가시여 시신운반준비 상태를 돌아보시고 렬차에 올라 부상자들도 또다시 만나시여 위로의 뜻을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역에서 리진군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시고 친근한 중국인의 벗들이 우리 땅에서 뜻밖의 비극적인 참사를 당한데 대하여 다시금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과 우리 당과 정부가 이번 사고를 놓고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말과 위로나 보상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들의 아픔을 달랠수 없다는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중국동지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싶은 마음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 중대사고조사와 처리를 엄격히 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철저히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안고 전용렬차를 떠나보내시였다.

본사기자

# 절세위인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한없이 넓은 포용력은 자주통일의 위대한 원동력이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비망록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업업실현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런석회의 70돐을 맞이하고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역사적인 전민족적대회합

역사적인 4월남북런석회의는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투철한 자주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직후의 복잡한정국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몰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적대립까지 침착히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디.》

우리 나라는 돌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은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조국통일로선이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가 유엔의 간판밑에 《단선단정》 조작책동을 약탈하게 벌려던 억울한 시기인 주체36(1947)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남북협상범인 에 대하여》에서 우리 민족의 분열을 노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독정부》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련석회의소집을 받기하시였다.

이 제안은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당시 서울에서 발간된 《자유신보》은 남북런석회의소집에 대해 《남북분열 3년의 암운을 헤칠 서광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 회담은 조선민족이 요구하는 유일한 활로이며 따라서 이를 희망하는 열의가 남조선 방방곡곡에 충만되어있다.》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런석회의소집제안을 천명하신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력사의 이날에 즈음하여 민족분열의 첫 시기에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민족대단결합의 전통을 마련하시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던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역사적인 전민족적대회합

한없이 넓고 인자한 품을 찾아 남조선의 좌익, 중간은 물론 우익정객들도 저저마다 사선을 헤치고 평양길에 올랐다.

그들 가운데는 해방전부터 공산주의의령을 기를 쓰고 반대해왔고 해방후 남조선에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총본부》 부총재 등을 하던 김구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의 넋을 중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회의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주체 37(1948)년 3월 몸소 그의 련락원을 만나주시고 반공으로 일목진 진안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김구만이 아니라 김구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철수 등 당대의 민족주의자들도 주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합의 뜻을 이해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김구만이 아니라 김구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철수 등 당대의 민족주의자들도 주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합의 뜻을 이해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김구만이 아니라 김구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철수 등 당대의 민족주의자들도 주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합의 뜻을 이해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김구만이 아니라 김구식,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철수 등 당대의 민족주의자들도 주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합의 뜻을 이해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 태양의 빛발아래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역사적인 4월남북런석회의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민족대단결의 위력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불멸의 대장정으로서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길에 땀이울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업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4월남북런석회의의 경험과 성과에 토대하여 민족의 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38(1949)년 6월 전조선적인 통일전선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신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의 애국적 민주적투쟁을 하나의 통일전선에 묶어세우고 민족대단결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신 력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과와 종교의 소속, 정치적경해를 가리지 말고 반드시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

구절구절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애국의 의지가 차넘치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모교에 접한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이 당하고있는 위기에 대한 장엄한 경중》, 《민족이 나아가갈 길을 밝혀주는 명백한 조명》이라고 하면서 격찬해마지 않았다.

런석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단호히 반대배격할데 대한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통일투쟁으로 호소하는 격문 《조선전동포에게 격항》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런석회의가 끝난 후 4월 30일에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에서는 쏘미량국군대가 조선에서 철거한 다음 전 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민주주의조선림시정부를 수립한데 이어 조선최고법원기관을 선거하고 헌법을 제정하며 통일적민주주의조성정부를 세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부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공동성명서가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일 대동강의 축선에 남부런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런석회의 지도부 성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합의 뜻을 이해하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 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였다.

남부런석회의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분열주의적책동과 《단선단정》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개시를 알리는 포성으로 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는 《단선단정》 반대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고 파업투쟁과 동맹휴학, 시위, 폭동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좌익, 중간, 우익세력 할것없이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단호히 거부, 배척하였다.

《5.10단선》 반대투쟁은 나라의 통일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불굴의 의지, 단결된 힘을 내외에 보여준 거족적인 구국투쟁으로서 4월남북런석회의의 거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4월남북런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다.

### 즐기차게 이어진 위대한 장정

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 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던 주체 39(1950)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남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의 첫최고법원기관을 창설할것을 제의하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투쟁에 관한 호소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지던 1970년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기도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70(1981)년 8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추진대회소집제안을 내

놓으신데 이어 주체71(1982)년 2월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명의로 조국통일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련합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시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에도 남북런석회의와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대화와 협상을 위한 폭넓은 방안들을 내놓으시였다.

민족대단합실현을 위해 기울인 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애국헌신과 탁월한 령도가 있어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이 하나로 뭉친 상징적인 전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후대들에게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통일공약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주시여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하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신 민족의 영리한 태양이시다.

력사적인 4월남북런석회의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민족대단합의 위력으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온 겨레를 민족단합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하시려는 용지를 안으시고 력사적인 4월남북런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과의 협의회가 진행되던 축선에 혁명사적지를 건설하며 통일전선탑을 건립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성과 세심한 지도밑에 품치수려한 대동강의 축선에 건립된 통일전선탑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어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장군님의 고귀한 뜻이 뜨겁게 어렁이는 불멸의 기념비이다.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업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구 통일의 상징으로서 세워진 그 평양의 통일거리에는 조국통일3대원칙기념탑이 거연히 솟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정적작품을 발표하시여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가장 올바른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과 승고한 통일을 민족대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해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회상봉이 마련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전환적극면을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시대의 위대한 흐름을 따라 북남사이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을 망라한 6.15공동선언실현 민족공동위원회 결성되는 등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련대련의 총화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작성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통일공약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의 통일공약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언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지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동강의 축선에 건립된 통일전선탑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어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장군님의 고귀한 뜻이 뜨겁게 어렁이는 불멸의 기념비이다.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업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구 통일의 상징으로서 세워진 그 평양의 통일거리에는 조국통일3대원칙기념탑이 거연히 솟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정적작품을 발표하시여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온 겨레에게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가장 올바른 길을

인사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서 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공동의 리의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경력이 어떠한 분지 않은 시고 대범하게 포용하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승고한 덕망을 지니신 대성인이시였다.》, 《이 세상에 김정일장군님처럼 도량이 넓고 너그러우신분은 없다.》, 《사상과 리념의 차이, 신앙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애국의 지향에 나신 만사람에게 사랑과 인음을 배부신 김정일장군님은 인덕으로 천화를 얻고 천화를 움직이신 위대한 정치가이다.》…

해내의 각계층 동포들속에서 울려나온 이 칭송의 목소리들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녀본적이 없는 승고한 덕망과 무한대한 도량으로 온 민족을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시고 자주통일업무를 힘차게 전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이 어려웠다.

북과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령도력과 승고한 품도를 지니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고 민족대단결의 세 력사를 펼쳐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무궁무진할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피줄을 나는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올해초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레전도시범단, 기자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대표단들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여 북과 남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에 의해 열려진 화해와 단합의 길을 따라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예술단을 비롯한 남측의 사절단들이 련이어 평양으로 찾아와 만고절이 된이여 평양의 뜨거운 동포애와 친척위원상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은 겨레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속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력사적인 북남수회상봉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국의 승고한 뜻과 넘칠수 없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존영되고 부강변명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림있는 의지가 안아온 민족사적대사변이다.

지금 온 겨레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통일애국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계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두리에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평화변명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민족단결의 구심점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라고 심층의 격정을 터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세계정치와 조선반도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조국통일의 결정적극면을 열어나가는 친척위원을 우리로써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승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색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이 이어 오폭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이 있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부강변명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주체107(2018)년 4월 28일 평양



판문점이라는 지명은 오래전에는 동네 이름이다. 당시에는 행인들은 개성—장진—서울을 오가는 길에 립진강지류인 사천강을 건넌데 물이 범람하면 강근처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물이 쟈 때를 기다려야 하였다. 그때부터 널로 지은 가게들이 자리잡으면서 생겨난 마을이 판문점이다.

지난날 평화로운 고장이었던 판문점이 한지맥을 경계보다 더한 지형으로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것으로 하여 오랜 세월 민족분열의 상징으로 되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내주고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되게 하려고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통일에 대한 민족의 희망과 기대가 온 강토에 차넘치는 4월의 봄날에 그이께서 판문점에 남기신 통일령도의 자욱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의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시도, 어느 하루도 조국통일에 대하여 잊으신적 없으셨다.

분열의 비운이 짙어갈수록 통일에 대한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63(1974)년 7월 어느날 판문점을 찾으셨다. 그날 그이께서는 판

문각로대에 오르시어 해묵은 갈대숲이 무성한 군사분계선 너머 남쪽지역을 바라보시었고 서울까지의 거리도 가늠하여보셨다.

판문점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는 불과 한시간, 걸어서는 하루길도 안되는 지척이지만 군사분계선이 가로막고있어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지 못하고있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하겠다고 천만군의 무제가 실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한다. 가슴아픈 민족분열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숭고한 념원과 의지가 어린 말씀이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고 순간도 《두개 조선》을 생각하여본적이 없으셨다. 역사앞에, 민족앞에 책임지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여기신 장군님이시었다.

기나긴 세월 판문점은 대결과 분열의 상징으로 되어왔고 민족의 아픔과 분노, 증오가 응집된 곳이었다.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지만 분별로 상처입

# 불멸의 통일장정을 전하는 판문점

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비극을 끝장내기 위하여 수백여차례 달하는 북남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통일행사들도 열린 력사의 현장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6(1977)년 여름 개성을 현지지도하신 길에서도 판문점을 찾으셨다.

사천강가의 둔덕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비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며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 시도 미흡수 없는 우리 인민의 지상의 과업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에게는 그날따라 비를 머금은 하늘도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민족의 불행을 헤아려 어두운 장막에 잠긴것처럼 느껴지였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나는 이

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었다.

판문점에 어린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애국의 숭고한 뜻과 의지는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친필비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그이께서는 주석님의 체취가 어린 마지막친필을 비문에 정히 새겨어 판문점에 모시도록 하시었



남관계선을 추동해나가도록 해주셨다.

이뿐이 아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시어 북과 남사이의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게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그이의 뜻과 의지에 의해 오늘도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라는 특기할 민족사의 사변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극단으로 치달던 엄중한 조선반도정세가 올해에 들어와 화해와 단합, 평화에로 전환하고 불과 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남관계가 과거의 몇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전진하게 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일업수행에서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다.

리윤경

# 승리의 새로운 이정표를 밝힌 뜻깊은 회의

공화국의 대외적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전체 인민을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궁지높이 실현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혁명발전의 전환적구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인민들이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도이다.

경제를 발전시켜 물질적재부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창조할수록 율택여지는것이 인민의 복리이다.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서는 당면하게 모든 생산기지에서 생산성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게 하며 전망적으론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이 차려지도록 하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

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한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양양과 비약을 일으키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만민대개의 사업이라고, 과학과 교육을 증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이것에서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은 과학교육을 얼마나 증시하고 내세우고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들자

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예 국가의 인적, 물질,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은 강력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한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며 생산적양양과 비약을 일으키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만민대개의 사업이라고, 과학과 교육을 증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이것에서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은 과학교육을 얼마나 증시하고 내세우고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을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들자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구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만사에 능통한 천재적재지와 슬기, 완벽한 령도적재질과 품모를 지니신 탁월한 령도자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사상과 로선은 과학이며 진리이다. 이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급변하는 세세추이와 강력한 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오늘뿐아니라 먼 날을 내다보며 설계되고 작성된것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와 성공만을 담보하는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로선이다.

세계인론들과 남조선인론들은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소식을 중대보도로 전하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전략적구상》, 《북이 과학, 교육수준을 높여 강대국이 될 구상을 내놓았다》고 널리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의 웅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 현명한 령도는 과학이며 진리이다. 그의 탁월한 령도성일이 공화국은 승리에 더 큰 승리로 비약하고있다.

순학미

# 뜨거운 민족애, 화고부동한 통일의를 키우려고

오늘 북남관계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온 겨레와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남조선 언론 《자주시보》는 《2018년도 조선반도정세가 급변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변하고있는데 그 중심에는 김정은위원장님이 서있다.》라고 전하였다. 외신들도 《김정은위원장님이 조선반도운전대를 잡고있다.》고 평하였다.

세인이 인정하듯이 지금 조선반도의 극적인 정세흐름은 력사의 방향타를 역 세계를 뒤러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확고히 주도되고있다.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자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나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대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이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남

관계개선방향을 제시하시고 새해정초부터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었다.

남조선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풍을 안아오는 뜻깊은 계기가 되도록 하시려고 공화국의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사절단들을 남쪽지역에 파견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이 세계가 환희로 들끓었다. 통일을 앞세운 북과 남의 선수들이 경기대회개막식장에 공동입장하고 단일팀을 꾸어 경기에 출전하며 남측선수들과 한마음이 되어 열렬히 응원하던 공화국응원단의 열기면 모습은 하나의 민족, 한피줄을 이은 동족만이 펼칠수 있는 감동의 화폭이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과 도전은 약탈하였지만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에 두차례에 걸쳐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시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드높이고 북

남관계개선을 추동해나가도록 해주셨다. 이뿐이 아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시어 북과 남사이의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게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그이의 뜻과 의지에 의해 오늘도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라는 특기할 민족사의 사변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극단으로 치달던 엄중한 조선반도정세가 올해에 들어와 화해와 단합, 평화에로 전환하고 불과 넉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남관계가 과거의 몇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전진하게 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일업수행에서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다.

리윤경



남측예술단의 평양방문기간에 펼쳐진 북남예술인들의 련합공연무대 《우리는 하나》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여러 나라들에서 지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였다. 또한 평화수호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편 에쥘트와 무성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몽골대의관계성 출판대변인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 각계층 인민들의 목소리

##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승리가 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정기지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금이 젖어든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이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애국헌신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났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

##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승리가 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정기지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금이 젖어든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이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애국헌신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났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

##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승리가 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정기지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금이 젖어든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이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애국헌신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났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

##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승리가 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정기지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금이 젖어든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이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애국헌신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났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

##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승리가 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정기지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금이 젖어든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갖추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병진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이의 사생결단의 의지와 애국헌신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일어났고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

본사기자

